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와 관련 지명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 경향

이미숙*

1. 서론

1.1. 연구 목적

지명은 오랜 세월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리트르(Y. Elitzur)는 지명을 ‘언어학의 전집’(linguistic corpus)이라고 묘사했다.¹⁾ 또한 세계 어느 지역이든 지명 안에는 고대 문화의 흔적과 심리 상태, 사회 및 종교 등의 많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²⁾ 이 점은 특별히 구약 성서의 무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약에는 거의 천여 개에 이르는 지명들이 나타난다.³⁾ 성서 안에 보존된 지명은 성서의 땅의 역사적 지리를 탐구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역사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명들은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참고해 왔다. 그러나 성서 지명들의 위치 확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yims@puts.ac.kr.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0360).

- 1) Y. Elitzur, *Ancient Place Names in the Holy Land: Preservation and History*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4), 1.
- 2) F. T. Wainwright, *Archaeology and place-names and history: an essay on problems of coordination* (London: Routledge & K. Paul, 1962), 38-56; 앤슨 F. 레이니, R. 스티븐 나틀리,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0), 17에서 재인용.
- 3) R. Steven Notley and Z. Safrai, *Eusebius, Onomasticon: The Place Names of Divine Scripture* (Boston; Leiden: Brill, 2005), 167-194 참고.

인 외에는 지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들은 적고, 국내에서 성서 지명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드문 편이다.⁴⁾

마소라의 히브리어 지명들 가운데는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반영해 형성된 지명들이 다수 존재한다. 구약성서의 역사, 지리적 배경인 고대 중동은 지중해성 기후와 건조 기후의 영향으로 형성된 땅들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이 반영된 전문 용어(technical terms)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질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리적 환경이 다른 경우 그러한 특성을 제대로 살려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어려움은 슈바르첸바흐(A. Schwarzenbach)의 조사에 따르면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 129개에 대해 칠십인역은 세 배에 달하는 450개의 그리스어 상응어들로 번역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⁵⁾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스라엘 땅의 지리,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는 히브리어 용어들이 후대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히브리어의 지리적 용어나 지명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문제에 처음으로 직면한 사람들이 칠십인역 번역자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 지형적 특색을 반영한 용어들이나 지명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칠십인역은 후대의 유대교와 기독교에 사상적 영향뿐만 아니라 후대 번역본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만큼 처음으로 지명, 지리적인 용어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에 대한 칠십인역 번역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를 통해 지리적 이해가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현대 번역본들의 번역 문제를 검토하고 한글 성경의 개정을 위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4) 국내의 성서 지명과 관련된 연구들은 5편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성서 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의 번역과 음역에 대한 연구로는 세 편의 연구가 있다. 박동현, “개역 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방석중,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8 (2001), 158-183; 박동현, “개역 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일부 통일 제안”, 『성경원문연구』 11 (2002), 68-89. 그러나 성서 지명에 대한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 김창주, “출애굽 초기 경로와 지명 톨아보기-믹돌, 바알스븐, 비하히룻”, 『성경원문연구』 35 (2014), 7-26; 이미숙, “오노마스티콘으로 본 유세비우스와 제롬의 성서 지명 이해”, 『장신논단』 46:4 (2014.12), 61-88.

5) 히브리어 용어 개수와 칠십인역의 상응어 개수는 이 분야의 유일한 연구자인 슈바르첸바흐(A. Schwarzenbach)의 통계를 따른 것이다. A. Schwarzenbach, *Die Geographische Terminologie im Hebraischen des Alten Testaments* (Leiden: E. J. Brill, 1954), 163-174의 부록 참고(이하 GTH).

1.2. 연구사와 방법론

히브리어의 지리적 용어와 칠십인역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독일의 슈바르첸바흐가 유일하다. 그는 *Die Geographische Terminologie im Hebraischen des Alten Testamentes*에서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지리적 용어들을 집대성하고 이 용어들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129 개의 히브리어 용어들을 지형과 물, 경작지, 지질적 용어들로 분류한 후 이 용어들이 칠십인역과 아람어역 타르굼과 시리아어 본문들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히브리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원론적 접근을 해서 고대 셈어뿐만 아니라 비 셈어의 관계를 살펴 히브리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지리적 이해를 도모하려 했다. 이러한 어원론적 접근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브리어 단어들의 어원을 새롭게 밝히고 과거에 잘못 알려진 단어들의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약 본문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는 성과가 있었다.⁶⁾ 그러나 슈바르첸바흐는 용어들의 집대성과 번역본들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칠십인역의 번역 경향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그가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을 망라했지만 ‘세펠라(שפלה)’, ‘네게브(נגב)’ 같은 주요 용어들과 지명 속에 포함된 지형 용어들이 다소 누락된 문제점이 드러난다.⁷⁾

마소라에 대한 칠십인역 번역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칠십인역 번역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지리적인 용어들을 다루기도 했다. 이 연구들은 비록 지리적인 용어들을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칠십인역의 번역 경향이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제임스 바(J. Barr)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에 어떤 식으로 모음을 붙였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그리스어 상용어를 찾아내거나 모음이 기록된 대본을 가지고 그에 맞는 그리스어 상용어를 택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가정했다. 제임스 바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경우 전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⁸⁾, 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적인 범주에 넣는다. 고유명사들은 당시 히브

6) Ibid., 157-158.

7) 슈바르첸바흐 목록에서 빠진 것들은 도시와 촌락과 관계된 용어들(חצר, כפר, קיר, רמה, ככר, ככר, רמה, קיר, כפר, חצר, חורש, יער) 숲(גליל, חבל, מדינה, גבול)과 경계나 영역(עיר) 등이다. 그가 지리적인 용어들을 선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것들이 누락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8) J. Barr, “Vocalization and the Analysis of Hebrew among the Ancient Translators”, B. Hartmann, et al., eds., *Hebräische Wortforschung: Festschrift zum 80. Geburtstag von Walter Baumgartner*, VTS 16 (Leiden: Brill, 1967), 3.

리어 발음을 참고해서 모음을 표시하거나 추측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그리스어의 많은 변이들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⁹⁾ 그는 다른 연구에서 칠십인역 번역자가 히브리어와 뜻이 같으면서도 유사한 음성을 가진 그리스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경향을 보인다는 과거 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지리적 용어인 ‘바마(במא)’를 택해 칠십인역 상응어, ‘보모스(βωμός)’가 소위 유사 음성어(homoeophony)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논증했다.¹⁰⁾

다른 한편으로 칠십인역 번역이 때로 신학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에¹¹⁾ 대해 올로프슨(S. Olofsson)은 예레미야 2:18에 나타난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 ‘쉬호르(שׁוֹר)’를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¹²⁾ 그는 칠십인역 번역자(들)가 ‘쉬호르’의 상응어로 ‘게온(Γηων)’을 택한 것은 낙원을 상징하는 에덴의 강들 중 하나인 기혼(창 2:13)을 의미함으로써 신학적인 동기를 보여 주는 것인지질 질문했다. 구약에서 ‘쉬호르’가 나오는 다른 용례들에서 칠십인역은 각기 다른 이해를 보인다.¹³⁾ 따라서 올로프슨은 예레미야서의 칠십인역 번역자는 당시에 알려진 그리스어 지명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며 외경과 고대 문헌에서 기혼이 나일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에 근거해 예레미야 2:18의 ‘쉬호르’는 번역자의 지리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동기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슈바르첸바흐 이래의 선행 연구들은,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의 지리적인 용어들에 대한 상응어를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이나 동기를 반영했는지를 추정하거나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진전된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 칠십인역 번역의 기술과 경향은, 칠십인역이 직역인지 의역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문법, 문장론, 어휘와 어원학, 번역의 동기 등에 관한 연구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칠십인역이 여러 번역자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된 것과 본문의 복잡한 전승사적인 문제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는 연구 주제이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지리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칠십인역 연구에서 이러한 논쟁

9) Ibid., 4-6. ‘바마(במא)’는 칠십인역에서 14개에 달하는 상응어를 갖고 있는데 이 중 ‘보모스(βωμός)’는 예언서에서만 7회 나타난다(호 10:8; 암 7:9; 사 15:2; 16:2; 렘 7:31; 31:35; 39:35).

10) J. Barr, “Doubts about homoeophony in the Septuagint”, *Textus XII* (1985), 20-27.

11) H. M. Orlinsky, “The Septuagint as Holy Writ and the Philosophy of the Translator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6 (1975), 103-113.

12) S. Olofsson,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ical Exegesis*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28-49.

13) 수 13:3(ἀουκίτου, 폐허); 19:26(Σιων, 시온); 사 23:3(μεταβάλλω, 상인); 대상 13:5(ὄριον, 지역).

을 해결하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의 선정과 범위는 슈바르첸바흐 목록에 따른 것으로 129개 중 지형과 물, 경작지에 관한 용어들 81개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¹⁴⁾ 이 용어들은 전체에서 약 63%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땅의 주요 지형들과 지리환경을 묘사하는 것들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슈바르첸바흐가 마소라의 용어들에 대한 칠십인역의 상용어들을 집대성한 것로부터 더 나아가 이를 체계화하고 번역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칠십인역의 특징을 알기 위해 현대 번역본들을 비교하여 지리적 이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소라의 81개의 지리적인 용어들(지형, 물, 경작지)에 대한 칠십인역의 상용어는 3배에 달하는 250개이다. 본 연구는 마소라와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일치한 경우와 마소라로부터 다르게 읽거나 음역으로 번역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그 특징과 경향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것의 원인과 동기를 밝힐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 특징

2.1.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적 용어

이스라엘 땅은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해 이 땅의 자연 경관과 지질은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사막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지만 지형 및 지질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개의 지역들과 하위 지역들로 나뉜다. 이스라엘의 지표층을 형성하는 암석의 대다수는 해양성 퇴적물이다. 이 암석들은 오랜 지질 연대를 거치는 동안 땅을 덮어 버린 바다 속에서 주로 퇴적되었거나 갯벌 속에서 퇴적되었다가 융기한 것이다.¹⁵⁾ 네게브의 중앙 산악 지대와 유다 산악 지대, 사마리아 산

14) 슈바르첸바흐의 목록은 79개이다. 그 차이는 ‘가으(גאױ, 골짜기)’가 ‘게(גאײ)’, ‘가이(גאײ)’로 활용되는 것 같은 변이형 때문에 발생한다. 그의 목록에는 ‘가으’ 안에 ‘게’가 포함되고 ‘가이’는 누락되어 있다. 각 변이형도 상용어를 갖고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참고). 따라서 본 연구는 81개로 하기로 한다. ‘가이’는 무라오카(T. Muraoka) 색인표와 해치와 레드패스(E. Hatch and H. A. Redpath) 성구 사전에 따라 추가한 것이다. E. Hatch and 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vol. 1-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4-1987); T.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15) E. Orni and E. Efrat, *Geography of Israel* (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악 지대의 대부분, 갈릴리 산지의 중심부, 길르앗 산지 등은 석회암과 백운암(dolomite, 白雲巖)이 분포한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강성석회암(cenomanian)은 풍상과 침식에 강해 높은 산지를 이루지만 빗물이 침투해 지하수를 형성해서 샘이 분포한다. 샘과 관련해서 마소라는 5개의 다른 용어로 묘사하였다. 저지대에 취락이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강우량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은 샘의 분포로 인해 산지에 취락이 발달한 특징이 현저하다.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 중 산, 언덕 등 높은 지형과 관련된 용어들(21개)이 저지대를 가리키는 용어들(9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우세한 산지 지형과 관련이 있다.

산악 지대의 낮은 지대와 변두리 지대는 더욱 부드러운 암석, 특별히 백악암(chalk, 白堊巖)과 연성 석회암(eocene) 지층이 우세하다. 백악암 지층은 풍상과 침식에 약해 광야¹⁶⁾나 U자 모양의 개방적인 계곡을 형성하여 교통로를 제공한다.¹⁷⁾ 연성석회암 지층은 세펠라 지역에 분포하며 자연 동굴이 형성되어 은신처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움푹 파인 들어간 지형인 구덩이와 동굴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 마소라에서 14개로 다양한 것은 백악암과 연성 석회암 지질층으로 형성된 지형 덕분일 것이다. 바란 광야, 네게브의 북동 지역, 유다 광야, 사마리아 지역, 동요르단 고원 등의 대부분은 백악암 지역이다. 백악암 지형과 호수퇴적물인 이회토(泥灰土), 석고(gypsum), 소금 암석 등은 단층 계곡(rift valley)의 특징을 나타낸다.¹⁸⁾ 해안 평야 지역은 직선에 가까운 해안선으로 인해 약고, 읍바 외에는 항구가 발달하지 못했으며 바다에 의해 침식된 해안지형을 나타낸다. 모래가 바다에 의해 쓸려와 육지에서 굳어진 쿠루카르(kurkar) 사암이 해안을 따라 두로(Rosh ha-Niqra)에서부터 읍바 근처까지 분포한다.¹⁹⁾ 가이사라에서 읍바까지는 과도에 의해 침식된 약 30m에 이르는 해안 절벽이 형성되었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해안 사구가 넓게 발달하며 안쪽으로는 층적토가 발달해 블레셋 평야 지대를 형성했다.²⁰⁾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 중 해안과 관련된 용어가 적은 것은 산지 지역에 집중된 이스라엘의 취락과 관련이 있는

Translations, 1966), 4.

16) 광야 지형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슈바르첸바흐 목록에 따르면 초원과 광야에 관련된 용어도 22개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연구 범위의 제한상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17)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A. F. Rainey,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12.

18) E. Orni and E. Efrat, *Geography of Israel*, 12.

19) D. Baly, *The Geography of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Pub., 1974), 41-42.

20)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5.

것으로 보인다.

2.2.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의 범위와 유형

2.2.1. 지형

(1) 고지형

① 높은 산, 산지: ‘하르(הר)’는 산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유다, 에브라 임 산지 등을 나타내거나 헬몬산처럼 홀로 높은 산을 가리키는 용어이다.²¹⁾ 산지는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전통적인 지역 구분의 하나로 나타난다.²²⁾

② 낮은 산, 언덕: ‘기브아(גבעה)’, ‘가브(גב)’, ‘바마(במה)’, ‘텔(תל)’, ‘오펠(עפל)’, ‘케렌(קרן)’, ‘네드(נד)’, ‘레케쓰(רכס)’. 언덕이나 낮은 산을 가리키는 용어는 여러 개이나 일부는 특정한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펠’(오벨)²³⁾은 예루살렘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유일하게 보통명사 ‘언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왕하 5:24). ‘텔’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언덕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 언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브아’는 위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주변과 고립되어 낮게 융기된 지형”으로 명확하게 정의된다.²⁴⁾ 『개역개정』은 ‘기브아’가 지명과 결합된 경우에는 가렘 언덕(렘 31:39) 외에는 모두 산으로 번역되었다. ‘레케쓰’, ‘바마’와 ‘가브’는 사람의 ‘등’에서 유래한 말로 둥근 언덕을 가리킨 용어로 추정된다. ‘바마’는 이방 제단이 세워진 장소 자체를 가리켜 ‘산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1) A. Schwarzenbach, *GTH*, 6-7; Y. Elitzur and Y. Keel, *The Daat Mikra Bible Atlas: A Comprehensive guide to Biblical Geography and History*, L. J. Schramm, trans. (Jerusalem: Keter Press, 2011), 7(이하 *The Daat Mikra*).

22) <표 1> 가나안 땅의 지형 구분

신 1:7	수 10:40	수 11:16	수 12:8	삿 1:9
산지(הר)	산지(הר)	산지(הר)	산지(הר)	산지(הר)
남방(גב)	남방(גב)	남방(גב)	남방(גב)	남방(גב)
평지(שפלה)	평지(שפלה)	평지(שפלה)	평지(שפלה)	평지(שפלה)
아라바(ערבה)		아라바(ערבה)	아라바(ערבה)	
	경사지(אשרות)		경사지(אשרות)	
해변(חוף הים)			광야(מדבר)	

23) 카다리(M. Z. Kaddari)는 ‘오펠’은 진지를 갖춘 성읍 안의 언덕으로 정의한다(미 4:8). M. Z. Kaddari, *A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Alef-Taw)* (Ramat Gan: Bar-Ilan University, 2007) (in Hebrew), 818(이하 *Dictionary*).

24) A. Schwarzenbach, *GTH*, 10; Y. Elitzur and Y. Keel, *The Daat Mikra*, 7; M. Z. Kaddari, *Dictionary*, 225-226.

따라서 ‘바마’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산비탈, 경사지: ‘첼라(צֶלַע)’, ‘아셰드(אֲשֶׁד)’, ‘아루츠(עֲרוּץ)’, ‘마드레가(מַדְרֵגָה)’, ‘카테프(כַּתֵּף)’, ‘마알레(מַעְלָה)’, ‘모라드(מֹרָד)’. 이들 중 ‘첼라’, ‘아셰드’, ‘아루츠’, ‘마드레가’, ‘카테프’는 산의 측면, 산비탈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마알레’(오르막길)와 ‘모라드’(내리막길)는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아셰드’는 경사지라는 지리적인 의미가 확장되어 그것의 복수형 ‘아셰돏(אֲשֶׁדוֹת)’으로 구별해서 사해 서쪽과 동쪽의 가파른 경사지를 일컫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

④ 기타: ‘헤아코브(הַעֲכָב)’와 ‘셴(שֵׁן)’은 험한 산세를 묘사하는 용어들이다. 슈바르첸바흐는 ‘세켄(שֶׁכֶם)’이 지명이 아닌 ‘산등성이’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창 48:22).²⁶⁾

(2) 저지형

① 골짜기: ‘가으(גַּי)’, ‘게(גַּי)’, ‘가이(גַּי)’. ‘가으’, ‘게’, 혹은 ‘가이’는 고지형인 ‘하르’와 대조적인 저지대에 형성된 지형으로 구릉 지대와 산지 사이에 발달한 완만한 경사의 골짜기를 일컫는 것으로, 좁을 수도 있고 전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을 수도 있다.²⁷⁾ 힌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골짜기이다(수 15:8; 18:16; 대하 28:3).

② 넓고 큰 골짜기: ‘에멕(עִמֶק)’, ‘비크아(בִּקְעָה)’. ‘에멕’과 ‘비크아’가 ‘가으’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에멕’과 ‘비크아’는 비교적 넓은 규모의 골짜기를 일컫는 말로 다른 부분에서는 평지로도 사용되었다(사 40:4; 43:14; 암 1:5). 이러한 골짜기들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곡창 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멕’), 세펠라 지역의 아얄론 골짜기(‘에멕’), 엘라 골짜기(‘에멕’), 므깃도 골짜기(‘비크아’), 여리고 골짜기(‘비크아’) 등이 속한다.

③ 와디: ‘나할(נַחַל)’은 우기에는 일시적으로 하천이 되었다가 건기에는 메마른 땅이 되는 중동 지역의 특수한 지형이다.²⁸⁾ 이러한 하천을 현대 지리학에서는 아랍어 ‘와디’를 따라 그대로 고유명사로 부른다. 현대는 물이 있는 ‘나할’과 물이 없는 ‘나할’로 구분한다.²⁹⁾ 우기에 물이 흐르는 겨울 시

25) 사해 동쪽의 급경사지(신 3:17; 4:49; 수 12:3; 13:20). A. Schwarzenbach, *GTH*, 25. 위 각주 22번에서 언급된 가나안 땅의 지역 구분 중 경사지는 사해 서쪽의 급경사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수 10:40; 12:8).

26) *Ibid.*, 22-23.

27) A. Schwarzenbach, *GTH*, 32; Y. Elitzur and Y. Keel, *The Daat Mikra*, 6.

28) 와디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장호 편저, 『지리학 사전』 (경인문화사, 1984), 318 참고.

29) Y. Zvi, “Mighty Rivers in a Desert Land”, *Eretz* 64 (1999), 10-12; G. A.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Jerusalem: The Fontana Library, 1968), 439-440; Y. Elitzur and Y. Keel, *The Daat Mikra*, 9.

내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한다(신 8:7; 렘 31:9).³⁰⁾ 와디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나할’이 계절에 따라 하천과 물 없는 골짜기를 다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④ 평지: ‘미쇼르(מִישׁוֹר)’, ‘미쉬토아흐(מִישְׁטוֹחַ)’, ‘샤베(שׂוּבָה)’. ‘미쉬토아흐’는 과일이나 그물을 펼쳐 말리는 곳인데 에스겔서에서만 그물과 관련해서 3번 나온다(겔 26:5, 14; 47:10). ‘샤베’(사웨)는 창세기 14:5에서 동요르단의 아르논 북쪽의 고원 평지와 관련된 용어로 현대 번역본들처럼 대부분 지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지’로 해석할 수 있는가 논쟁이 있다.³¹⁾ ‘미쇼르’는 동요르단의 모압과 골란 지역의 넓은 고원 지대를 일컫는 지리적 용어였으나 서요르단의 고원 지대에 적용되었고(사 40:4), 평평한 땅은 ‘정의’, ‘공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확장되었다(시 27:11; 143:10 등). ‘미쇼르’와 ‘샤베’는 고원 지대를 뜻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평지, 평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³²⁾

(3) 오목 지형

오목 지형은 구덩이, 굴, 구멍처럼 움푹 파이거나 바위나 절벽에 균열이 있는 지형들을 가리킨다. 오목 지형은 매우 다양하며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번역과 해석이 어렵다. ‘파하트(פַּחַת)’, ‘샤하트(שַׁחַת)’, ‘슈하(שׁוּחַ)’, ‘쉬하(שִׁיחַ)’, ‘미크레(מִכְרֵה)’, ‘구마츠(גּוּמָצִי)’, ‘메힐라(מַחְלָה)’, ‘후르/호르(חֹר)’. 이 용어들은 대체로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파하트’와 ‘샤하트’는 함정, 죽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슈하’는 사막과 관련된 구덩이로(렘 2:6), ‘미크레’는 소금 지역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습 2:9). ‘메아라(מַעְרָה)’는 입구는 좁으나 안이 넓은 동굴을 가리킨다. ‘마케베트(מַקְבֵּת)’, ‘네카라(נִקְרָה)’, ‘사이프(סַעִיף)’, ‘나키크(נַקִּיק)’는 바위의 틈과 같은 협소한 지형과 관계있으며 ‘호아호(חֹוּחַ)’는 가시덤불이라는 뜻³³⁾이 있는데 은신처로 나타난다(삼상 13:6).

30) A. Schwarzenbach, *GTH*, 30; M. Z. Kaddari, *Dictionary*, 706-707.

31) 슈바르첸바흐는 창 14:5를 “기라다임의 평지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아랍어 어근 ‘평평하게 만들다’에 근거한 것이다. A. Schwarzenbach, *GTH*, 36; M. Z. Kaddari, *Dictionary*, 1065.

32) 고원 지대는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기복이 적은 평탄한 지형이며 급경사가 발달한 특징을 갖는다. 정장호 편저, 『지리학 사전』, 35.

33) M. Z. Kaddari, *Dictionary*, 279.

2.2.2. 물

(1) 샘

‘모차(מוצא)’, ‘아인(עין)’, ‘마으얀(מעין)’, ‘마부아(מבוט)’, ‘마코르(מקור)’. 수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산지에 취락이 발달한 원인은 샘의 분포 때문이다. 샘과 관련해서 5개의 용어가 나타나는데 수원지와 관련된 ‘마코르’(렘 2:13; 17:13) 외에는 구분되는 것 같지 않다.³⁴⁾

(2) 흐르는 물

① 작은 강, 시내: ‘노젤(נזל)’, ‘야발(יבל)’, ‘유발(יובל)’, ‘펠레그(פלג)’. 이 용어들은 강우에 의해 형성된 강이나 시내들로 지하수가 원천인 샘과 구분된다. ‘펠레그’는 원래 인위적인 도랑이나 수로를 의미하다가 후대에 일반적인 시내를 가리키게 되었다.³⁵⁾

② 큰 강: ‘나하르(נהר)’, ‘예오르(יאר)’, ‘야르텐(ירדן)’. 이들은 상시 하천으로 ‘나할’(와디)과 분명히 구분된다. ‘나하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같은 큰 강을 가리키고, ‘예오르’는 나일강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오르’가 드물게 보통명사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욥 28:10; 시 33:21).³⁶⁾ ‘야르텐’(요단강)도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욥 40:23; 창 32:10[11]).³⁷⁾

③ 기타: ‘שבבל(שבבל)’은 ‘이삭’과 ‘조류’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해석의 논란을 일으킨다(삿 12:6; 사 27:12).

(3) 고인 물(바다, 호수, 우물)

‘미크베(מיקוה)’, ‘미크바(מיקוה)’는 모든 큰 물의 상위 개념이지만 고인 물의 형태인 샘, 우물, 물웅덩이로도 이해될 수 있다(출 7:39; 레 11:36).³⁸⁾ ‘암(ים)’은 대양, 지중해와 사해 같은 바다를 뜻하지만 나일강(사 19:5)과 유프라테스강(렘 51:36)을 일컫기도 한다. ‘아감(אגם)’, ‘게베(גבא)’, ‘비차(בצה)’는 늪, 호수, 습지를 가리킨다.

(4) 부속 지형(해변, 섬, 연안 등)

① 통행로: ‘마아바르(מעבר)’, ‘마으바라(מעברה)’, ‘아바라(עברה)’는 강을

34) 슈바르첸바흐는 ‘마부아’를 ‘용솟음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파생어로 보고 자연발생적으로 용솟음치는 샘으로 정의한다. A. Schwarzenbach, *GTH*, 56-57. 현대 번역본들 중에 NIV가 사 35:7의 ‘마부아’를 “bubbling springs”로 번역하거나 『새번역』이 사 49:10에서 “샘이 솟는 곳”으로 번역한 경우는 어근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다리의 성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5개의 용어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35) A. Schwarzenbach, *GTH*, 61-62; M. Z. Kaddari, *Dictionary*, 858.

36) A. Schwarzenbach, *GTH*, 64-65; M. Z. Kaddari, *Dictionary*, 388-389.

37) 현대 번역본들은 대부분 욥 40:23의 요단강을 고유명사로 번역했으나 유일하게 TNK는 ‘the stream’으로 번역했다. 두 본문에 대한 논란은 A. Schwarzenbach, *GTH*, 64 참고.

38) *Ibid.*, 67-68. 『개정개역』에서 ‘미크베’는, 출 7:19에서는 ‘호수’로, 레 11:36에서는 ‘물이 고인’으로 번역되었다.

건너는 나루나 여울목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³⁹⁾ ‘마보(מבוֹא)’는 한 장소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나 일몰, 서쪽, 서쪽 땅을 가리킨다(신 11:30; 수 1:4; 23:4 등).

② 해안, 연안 지형: ‘호프(חוף)’, ‘이(אֵי)’, ‘사파(שפּה)’, ‘기드야(גִּדְיָה)’, ‘미프라츠(מִפְרָץ)’, ‘야드(יָד)’. 이 용어들은 해안과 강이나 호수 연안의 지형과 관계가 있다. ‘기드야’는 강둑이나 제방을 뜻하며(수 3:15; 4:18 등), ‘미프라츠’는 부둣가를 가리킨다(삿 5:17).

2.2.3. 경작지

(1) 경작지, 들판: ‘사테(שָׂדֶה)’, ‘바르(בָּר)’, ‘야게브(יָגֵב)’, ‘마쉬케(מִשְׁקֵה)’. ‘사테’는 밭, 경작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생의 들판, 영토, 땅, 소유라는 다의적인 뜻이 들어 있어 문맥에 따라 상반된 이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바르’는 아랍어 차용어로 빈들, 들판이라는 뜻이고 ‘야게브’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경작지라고 볼 수 있다. ‘마쉬케’는 물이 풍부한 경작지를 가리킨다(창 13:5; 겔 45:14).

(2) 목초지: ‘미그라쉬(מִגְרָשׁ)’, ‘카르(כָּר)’. ‘미그라쉬’는 특별히 레위인이 소유한 방목지를 가리키는 특정한 용어로 여호수아 21장과 역대상 6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그라쉬’는 에스겔서에서 도시나 마을 외곽 지역을 일컫는 말로 나타난다(겔 45:2; 48:15, 17).

(3) 상속, 소유지: ‘헬카(חֶלְקָה)’, ‘헬레크(חֶלֶק)’. ‘헬카’는 비옥한 땅으로 지파 혹은 개인의 상속지와 관련되며 ‘헬레크’는 법률적 용어로서 경작지 자체가 아닌 몫을 뜻한다.

3.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에 대해 칠십인역 상용어가 일치하는 경우

지형과 물, 경작지와 관련된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 81개에 대해 칠십인역은 3배에 달하는 250개의 상용어를 갖는다. 칠십인역의 상용어들은 마소라의 단어가 원래 갖는 1차적인 뜻 외에 2차적인 의미나 다른 뜻이 사전에 있는 경우 일치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뜻에서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뜻인 경우는 유사 상용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지리적인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⁴⁰⁾하거나 원래 뜻으로부터 다르게 읽어 문맥을 변화

39) A. Schwarzenbach, *GTH*, 74-75; M. Z. Kaddari, *Dictionary*, 637, 772.

40) 음역은 보통명사를 고유명사화해서 지명으로 이해하거나 본문의 의미를 모호하게 할 수

시키는 정도라면 불일치로 볼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칠십인역 상응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154개, 유사 상응어는 45개, 음역은 21개, 다르게 읽기는 30개로 나타난다(<부록 1> 참고). 따라서 유사 상응어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포함하면 칠십인역의 번역에서 마소라와 일치율은 80%에 이르지만 불일치율도 20%에 달해 주목된다.

유형별로 보면 고지형은 마소라 21개 용어에 대해 칠십인역 상응어는 60개, 저지형은 9개에 대해 44개의 상응어, 오목 지형은 14개에 대해 36개의 상응어로 각기 번역되었다. 저지형은 무려 5배에 달하는 상응어를 갖고 있으며 일치율은 약 55%, 불일치는 45%로 일치율이 가장 낮다. 고지형은 일치율 약 73%, 불일치율 약 26%로 저지형 다음으로 일치율이 낮다(<부록 1> 참고). 물과 관련된 용어들 중 샘은 마소라 5개에 대해 칠십인역은 12개의 상응어, 흐르는 물은 8개에 대해 21개의 상응어, 고인 물 용어들 6개에 대해 18개의 상응어를 갖는다. 물과 관련된 부속 지형은 10개에 대해 25개의 상응어로 나타나는데 일치율이 96%에 달해 가장 높다(<부록 1> 참고). 일치율이 높은 것은 여러 용어들에 대해 한 개의 상응어로 단순화시킨 용례가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경작지는 8개의 마소라 용어에 대해 4배에 해당하는 34개의 칠십인역 상응어를 나타낸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마소라의 용어들을 묘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보인 것들은 골짜기와 평지 같은 저지대와 관련된 용어들이었다.

3.1. 일치 상응어

3.1.1. 지형

칠십인역에서 ‘하르’(산)는 주로 ‘오로스(ὄρος)’로, ‘기브아’(언덕)는 ‘부노스(βουνός)’로 번역하여 산과 언덕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드물게 ‘하르’가 ‘부노스’(미 6:2)로, ‘기브아’는 ‘오로스’(사 31:4; 겔 34:26)로 번역되기도 했다. 구약에서 500회 이상 나오는 ‘하르’가 ‘오로스’로 정형적인 번역 경향을 보여 준다면 100회 정도로 언급된 ‘바마’(언덕, 산당)는 칠십인역에서 6개의 상응어로 번역되어 대조된다. ‘바마’의 상응어들은 높은 곳(ὕψηλος, ὕψος, ἐπάνω), 언덕(βουνός)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것과 제단을 뜻하는 종교 용어들(θυσιαστήριον, βωμός)이다. ‘보모스’가 주로 예언서에서만 나타나며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리스어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⁴¹⁾ ‘텔’은 한때는 거주지였으나 버려진 폐허 언

있어 불일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1) J. Barr, “Doubts about homoeophony in the Septuagint”, 20-27; T. Muraoka, *A Greek-English*

덕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 구약에서 5회 사용되었는데 매번 다르게 번역되었다. ‘텔’의 칠십인역 상응어들 중 ‘높은 곳’(ὕψος, 렘 30:18[LXX 37:18]), ‘보루’(χῶμα, 수 8:28)는 폐허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길이 없는’(ἄβατος, 렘 49:2[LXX 30:18]), ‘사람이 살지 않는’(ἀοίκητος, 신 13:16[17])은 ‘텔’의 원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적 용어인 ‘텔’에 대해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상응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뜻한다.

저지형 용어들 가운데는 골짜기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절에 따라 하천과 마른 골짜기가 되는 특수한 지형인데 칠십인역의 상응어 역시 주로 시내(χειμάρρους, 65회)로 많이 번역되고 골짜기(φάραγξ, 37회) 순으로 나타난다.⁴²⁾ 칠십인역에서 다른 골짜기들의 상응어들이 거의 시내⁴³⁾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번역자들이 ‘나할’을 다른 골짜기들과 구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골짜기들과 달리 칠십인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골짜기, ‘비크아’는 평지(πεδῖον)로 드물게 통일된 편이다. 반면 동요르단의 고원 지대를 가리키는 ‘미쇼르’의 상응어는 평지(πεδῖον)나 음역으로 나타나 그곳의 특성을 구별했다고 보기 어렵다.

히브리어는 구덩이와 굴, 구멍 등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생성 원인이나 모양,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른 흔적을 가지고 있다. 10가지가 넘는 마소라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칠십인역 상응어는 일반적인 ‘구덩이, 구멍’이라는 뜻의 ‘보스로스(βόθρος)’, ‘트로글레(τρῶγλη)’, ‘오페(ὄπη)’로 비교적 통일된 편이다. 이것들은 마소라의 암석 지형과 관계있는 용어들(נקק, עיי, סע, נקרה, מנכות)의 상응어로도 나온다. 다만 ‘싸이프’와 ‘메아라’는 ‘스펠라이온(σπήλαιον, 동굴)’으로 구분되었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오목 지형 용어들의 차이를 몰랐거나 해당 상응어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3.1.2. 물

샘을 뜻하는 마소라 용어들(עין, מעין, מבוע)에 대해 칠십인역은 ‘폐계(πηγή)’로 정형화된 경향을 보인다. 다만 아인의 경우 지명과 결합된 경우에도 거의 일관되게 ‘폐계’로 번역한 특징이 드러난다. 반면 ‘모차’와 ‘마코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aris; Walpole: Peeters, 2009), 335(이하 *Lexicon*). 그러나 θυσιαστήριον도 이방 제단으로 언급된 용례가 있다(대하 14:4[במזבח], 호 8:11과 암 2:8[מזבח]). 그러나 Lust-Eynikel-Hauspie 사전(이하 Lust 사전)에서는 θυσιαστήριον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로, βωμός를 그것의 반대말로 제시했다.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210(이하 J. Lust, *Lexicon*).

42) A. Schwarzenbach, *GTH*, 32.

43) 겔 36:4에서 נַיִית은 시내(χειμάρρους)로 번역되었다.

르'는 다양한 상응어들로 표현되었는데, 수원지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용어들로 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부록 1>참고). 그러나 '마코르'의 상응어, '플랩스(φλέψ)'는 '지하수, 광맥'⁴⁴⁾을 뜻하는 용어로 구별되어 있다(호 13:15).

호르는 물 중에는 '펠레그'가 6개로 가장 많은 상응어를 보인다. '펠레그'는 '나누다, 쪼개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관개 수로나 물줄기를 묘사하는 용어로부터 시내로 의미가 확장되었고⁴⁵⁾ 칠십인역에서도 일반적인 시내나 강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급류를 뜻하는 용어들(ὄρμη, ὄρμημα 시 46:4[BHS 46:3, LXX 45:5], ἄφρεις 애 3:48)은 시적 표현을 위해 문맥에 맞는 상응어를 찾는 시도로 보인다. 저수지를 뜻하는 '미크베'는 모여진 물이라는 상응어들(σύστημα, συνεστηκός ὕδωρ, συναγωγή)로써 원 뜻을 반영하는 반면 '늪, 혹은 습지'라는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용어들 중 아감⁴⁶⁾을 제외하고는 '게바', '비차'의 상응어들은 구분되지 않는다.

3.1.3. 경작지

경작지를 묘사하는 마소라의 용어들 중 '사데'와 '미그라쉬'는 각기 10여 개에 이르는 상응어로 번역되었다. '사데'는 '들판, 밭'이라는 일차적인 뜻에서 확장된 다양한 의미들로 인해 상응어도 많아졌다. 사데는 영어의 'field'처럼 일상에서 폭넓게 쓰이는 말이지만 한글처럼 들판과 밭이 각기 다른 말로 구분되는 경우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가 중요하다. 칠십인역은 경작지를 뜻하는 경우(ἄγρός, πεδίου, γεώργιον)와 들판, 야생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ἄγριος, ἄγρικος)로 사전 상으로는 구분된다. 그러나 상반된 의미를 가진 두 용어들은 칠십인역에서 실제로는 교차로 사용된 용례가 나타난다. 특별히 신명기 22:25, 27에서처럼 '사데'가 연이어 나오는 구절에서조차 '페디온'과 '아그로스'를 '들판'의 의미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는 '사데'와 관련된 그리스어도 영어와 히브리어처럼 폭넓게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나 번역자의 문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그라쉬'는 레위인의 전용 용지인 목초지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해 도시나 마을 외곽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칠십인역은 여호수아 21장에서 '교외'라는 뜻의 '페리스포리온(περισπόριον)' 18회, '구별된 지역'이라는 뜻의 '아포리스메나(ἀφωρισμένα)' 40회로 교차로 나타나며 역대상 6장은 일관되게 '페리스포

44) J. Lust, *Lexicon*, 505.

45) A. Schwarzenbach, *GTH*, 61-62.

46) 아감의 상응어 중 ἔλος와 λίμνη는 늪과 습지라는 의미가 있다. T. Muraoka, *Lexicon*, 224, 432; J. Lust, *Lexicon*, 145. 그러나 Lust 사전에 λίμνη는 일반적인 '연못, 호수'의 뜻으로 나온다.

리온’(44회)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민수기 35:2-7에서 레위 성읍과 관련해 5번 사용된 ‘미그라쉬’에 대해 칠십인역은 각기 다른 상응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은 번역자의 차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3.2. 유사 상응어

‘가브’는 신체의 등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해 산등성이나 언덕을 가리키는 말인데 칠십인역 에스겔에서 3번 매춘과 관련된 장소(ὄκημα πορνικός 16:24, πορνείον 16:31, 39)로 번역되었다. ‘바마’는 산당이라는 공간 외에 우상(εἶδωλον, 겔 16:16)이나 주상(στήλη, 레 26:30; 민 21:28 등)과 같은 물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브’와 ‘바마’가 이방 제의가 행해진 장소로부터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 번역된 것은 칠십인역의 해석이거나 대본의 차이일 수 있다. ‘샤하트’는 구덩이, 굴을 뜻하는 지리적 의미에서 파생된 ‘파괴, 멸망, 함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샤하트의 상응어로 ‘디아프소라(διαφθορά)’⁴⁷⁾와 ‘사나토스(θάνατος)’가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때로 문맥에 따라서 지리적인 의미나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현대 번역본들에서조차 다양하게 번역되었다.⁴⁸⁾

섬(⚡)은 칠십인역에서 해안(θάλασσα, 단 11:18)과 민족(ἔθνος, 사 41:5; 42:4)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섬이라는 뜻이 후대 예언서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중해 항해가 가능한 이후에 사용되는 말이므로 먼 지역을 상징하는 해안이나 이방 민족으로 사용되던 말에서 확장된 후대의 용어라는 견해가 있다.⁴⁹⁾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에 대해 칠십인역의 상응어가 일치하는 경우에서 나타난 칠십인역의 특징은 단어 대 단어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 이상의 상응어들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상응어들이 많은 경우는 ‘바마’와 ‘사데’같이 용어 자체에 다의적인 뜻이 포함되었거나 ‘텔’과 ‘나할’처럼 지형적 특징에 따른 상응어가 없어 여러 단어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알레’와 ‘모레드’, ‘미그라쉬’처럼 하나의 의미를 여러 단어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어 특성이나 문체, 번역자의 차이일 수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

47) Lust 사전에서 디아프소라는 샤하트의 정형화된 상응어로 설명한다. J. Lust, *Lexicon*, 111.

48) διαφθορά(욥 33:28; 시 9:15[16]; 16:10[LXX 15:10]; 30:9[BHS 30:10, LXX 29:10]; 35:7[LXX 34:7]; 55:23[BHS 55:24, LXX 54:24]; 겔 19:4, 8). θάνατος(욥 17:14; 33:18, 22, 24, 30). 현대 번역본들은 멸망, 죽음이라는 큰 문맥에서 동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칠십인역보다 더 다양한 말들로 번역했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은 칠십인역의 디아프소라로 번역된 용례에서 ‘웅덩이, 함정, 구덩이, 멸망, 무덤, 파멸’로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다.

49) A. Schwarzenbach, *GTH*, 79. 카다리의 성서히브리어 사전에서도 ⚡의 1차 의미는 ‘해변가’, 2차 의미는 ‘먼 지역의 상징’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M. Z. Kaddari, *Dictionary*, 31.

다.⁵⁰⁾ 다른 한편 마소라의 오목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들 중 한 개의 단순한 상응어로 표현된 경우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지리적 지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4.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에 대해 칠십인역 상응어가 불일치인 경우

4.1. 음역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에 대한 음역은 21개(8%)로 칠십인역에서 비중이 작지만 칠십인역 번역의 경향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부록 1> 참고). 칠십인역의 음역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네 가지로 설명된다.⁵¹⁾ 1) 히브리어의 고유한 사그나 관습을 표현하기 위해 정확한 상응어가 없는 경우, 2) 지리적 용어를 고유명사화한 경우, 3) 번역자가 뜻을 알지 못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둔 경우, 4) 번역과 음역이 중복되는 경우 등이다. 첫 번째 외에 나머지 경우들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는 두 번째 경우, 지리적인 용어들을 고유명사화한 용례들이 해당하는데 그 양상은 단순하지 않다.

칠십인역 번역자가 문맥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고유명사화한 경우로 ‘바마’, ‘나할’이 여기에 속한다. ‘바마’가 음역으로 나온 경우는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의 배경에서 산당이 나오는 장면(삼상 9:12-14, 19, 25)과 기브온 산당을 가리킬 때이다(삼상 10:5; 대상 16:39; 21:29).⁵²⁾ 이방 제단 혹은 제의 장소를 뜻하는 ‘바마’를 알고 있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바마가 합법적인 성소로 사용되고 있는 문맥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지명으로 읽도록 한 의도로 추정된다. 나할의 음역은 어떤 사람의 출신지와 관련해서 언급되므로 지명으로 읽은 것은 이해할 만하다(삼하 23:30; 대하 11:32).⁵³⁾

50) 리(J. A. L. Lee)에 따르면 ‘미그라쉬’는 히브리어의 관용어를 평범한 일상어로 번역하려 했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새커레이(H. St. J. Thackeray)도 번역자들이 ‘미그라쉬’를 서로 다른 상응어로 묘사한 것은 다양한 문체로 가독성을 높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H. St. J. Thackeray,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I. Introduction, Orthography and Acci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4; J. A. L. Lee, *A Lexical Study of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Pentateuch* (Chico: Scholars Press, 1983), 80.

51)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6), 131.

52) 겔 20:29에서 2회 사용된 מִבְּמָה의 음역, Αβαμα는 이방 제의 장소를 가리킨다.

53) 렘 31:40[LXX 38:40]은 마소라와 다르게 읽어서 웨손이 의심 가는 본문인데 여기에서 기드

‘가이’(골짜기)의 음역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와 잘 알려지지 않은 골짜기들과 관련이 있다(왕하 14:7; 겔 39:11, 15; 느 2:13). 힌놈의 아들 골짜기 전체가 음역으로 나온 경우는 역대기에서 두 곳이다(대하 28:3; 33:6). 비록 용례가 적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통용된 지명을 그대로 음역했거나 예루살렘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⁴⁾

‘아세드’(산비탈)와 ‘미쇼르’(고원)는 각각 특정한 지역의 지형을 반영하는 말들로 대체로 음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세드는 6회 모두 음역으로 나타나는데 동요르단과 서요르단 지형을 언급할 때 나타난다. ‘아세드’는 르우벤 지파의 성읍(수 13:20)을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요르단을 차지한 동쪽 지파의 경계나 정북지역을 가리킬 때와 서쪽 지역을 지형적으로 크게 구분할 때 나타난다.⁵⁵⁾ 따라서 ‘아세드’(아세돏)는 경사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나 지명으로 읽기보다는 급경사지를 이루는 지형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미쇼르’도 마찬가지로 동요르단 지역에 형성된 탁상 모양의 고원 지대를 일컫는 특수한 용어이다. 아마도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상용어를 찾기 어려웠거나 지리적 지식에 대한 한계로 인해 지명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바라’(나루)의 음역은 자음을 고쳐 읽은 유일한 경우에 해당한다(삼하 15:28). 이 구절은 다윗의 도피와 관련된 배경에서 ‘광야 나루터’가 나올 때 언급된다. 아마도 칠십인역 번역자는 광야에서 나루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음을 고쳐 고유명사 ‘아라보스(Ἀραβώθ)’로 읽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칠십인역의 상용어가 고유명사화한 용례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의도적인 경우로 ‘바마’와 ‘나할’, ‘아라바’처럼 문맥과 조화시키기 위해 지명으로 읽거나 수정을 한 경우이다. 그러나 ‘가이’, ‘아세드’, ‘미쇼르’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한 지형으로 구성된 지역을 일컫는 총칭인 ‘아세드’와 ‘미쇼르’를 음역한 것은 지리적 지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반대일 수도 있다. 현대 번역본들도 지명이나 히브리어의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 음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적합한 상용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론 시내도 ‘나할 기드론’으로 음역되어 있다.

54) 수 18:16하반의 Γαιεννα도 힌놈 골짜기를 전체 음역한 경우이지만 역대기보다 일관성이 떨어진다. 수 15:8과 18:16은 한 구절 안에 ‘גַּיְוֹן בֶּן הַנֶּחֱלָה’와 ‘גַּיְוֹן הַנֶּחֱלָה’가 연이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15:8은 φάραγγα Ονομ으로 통일되었지만 18:16은 νάτης Ονομα과 Γαιεννα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설명하기 어렵다.

55) 각주 22번의 <표 1>과 각주 25번 참고.

4.2. 다르게 읽기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들로부터 다르게 읽은 경우는 31개로 칠십인역 상용어들 중 12%에 해당한다. 다르게 읽기는 대체로 마소라 본문에 문제가 있거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했다. 따라서 칠십인역의 다르게 읽기를 통해 어떤 특징과 경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대 번역본들⁵⁶⁾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4.2.1. 지형

‘바마’의 다르게 읽기 두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후대하는 긍정적인 문맥에서 ‘좋은 것들’(ἀγαθός, 사 58:14)과 ‘힘’(ἰσχύς, 신 32:13)으로 나타난다. 칠십인역은 ‘바마’의 지리적 의미보다 문맥에 맞추어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러나 ‘황폐, 혹은 광야’라는 읽기는 이해하기 어렵다(ἔρημος, 겔 36:2). 현대 번역본들은 예외 없이 ‘바마’의 지리적 의미인 ‘높은 곳’으로 번역했다. ‘오펠’은 예루살렘의 특정한 구역을 일컫는 곳(대하 27:3; 33:14; 느 3:27; 11:21)으로부터 보통명사로 진지가 있는 언덕을 가리키기도 한다.⁵⁸⁾ 칠십인역은 열왕기하 5:24에서 ‘오펠’을 ‘밤’, 혹은 ‘비밀 장소’(τὸ σκοτεινόν)로 읽는다. 또한 이사야 32:14에서 마소라의 ‘오펠과 망대’ 대신 ‘마을들’(κῶμαι)로 읽는다. 현대 번역본들도 두 본문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번역본별로 오펠, 요새, 언덕 세 가지로 각기 번역하며 일관성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번역본들이 원뜻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에 비해 칠십인역의 읽기는 차이가 커서 대본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네드’의 다른 읽기는 칠십인역의 오류로 추정되기도 한다.⁵⁹⁾ ‘네드’는 ‘벽, 제방’이라는 뜻이며, 자음은 같지만 ‘노드’는 ‘가죽 부대, 병’이라는 뜻이 있다.⁶⁰⁾ 마소라의 네드를 칠십인역의 시편에서 ‘노드’로 읽은 곳이 두 곳 발견된다(78:13[LXX 77:13]; 33:7[LXX 32:7]). 그러나 시편 33:7[LXX 32:7]에서 바닷물을 모은다는 문학적 표현과 관련해서 칠십인

56)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새번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이고 영역본은 NKJ, NIV, NRS, NJB, TNK를 택해 칠십인역과 비교하기로 한다.

57) 슈바르첸바흐는 칠십인역 대본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A. Schwarzenbach, *GTH*, 16.

58) M. Z. Kaddari, *Dictionary*, 818.

59) A. Schwarzenbach, *GTH*, 22.

60) D. J. 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V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617-618(이하 *DCH*).

역처럼 ‘노드’로 읽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읽기는 현대 역본들 중에서 NIV와 NRS에서도 반영되었다. ‘마드레가’는 산의 측면으로 경사진 곳을 일컫는 지형적인 용어로 두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붕괴되는 ‘높은 것, 교만한 것들’의 상징으로 나타난다(φάραγξ, 겔 38:20; προτειχίσμα, 아 2:14). ‘마드레가’는 바위로 된 높은 낭떠러지나 절벽을 일컫는 고지형 용어이다.⁶¹⁾ 그러나 칠십인역에서는 저지대의 골짜기(φάραγξ)로 문맥과 조화되지 않으며, 요새 시설의 한 부분을 묘사하는 ‘프로테이키스마(προτειχίσμα)’⁶²⁾도 ‘마드레가’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거나 지리적인 지식의 한계로 보인다. 현대 번역본들은 ‘마드레가’를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통일성 있게 번역했다.

저지형에 속하는 가이(골짜기)도 반대 개념인 산(ὄρος, 사 28:1, 4), 혹은 공동묘지(πολυάνδριον, 렘 19:2, 6)로 다르게 읽었지만 관련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춰 해석한 경우로 말할 수 있다. 이사야 28:1-8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문맥에서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는 산지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골짜기보다 산이라는 읽기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현대 번역본들 중 일부도 마소라대로 읽지 않고 ‘풍부한 양식으로 거만한 이들’이라고 의미 번역했다(NRS, TNK). 칠십인역 예레미야에서 가이를 공동묘지로 의미 번역한 것은 예루살렘의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드러졌던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를 저주하는 배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이 의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힌놈 골짜기가 언급될 때는 비교적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렘 7:31, 32; 32:35[LXX 39:35]).

‘슈하’와 ‘쉬하’는 구덩이⁶³⁾라는 지형을 묘사하는 말인데 칠십인역 두 곳에서 다르게 읽기가 나타난다. 예레미야 2:6하반에서 ‘슈하’는 아라바와 함께 광야를 설명하는 평행어로 나타난다. 칠십인역에서 마소라의 ‘사막과 구덩이의 땅’(בְּאַרְצֵן עַרְבָּה וְשׁוּחָה)은 ‘끝이 없고 흔적이 없는 땅’(γῆ ἀπίρω καὶ ἀβάτω)으로 번역되었다.⁶⁴⁾ ‘슈하’의 읽기에 대한 어려움은 현대 번역본

61) Ibid., 150; M. Z. Kaddari, *Dictionary*, 583.

62) T. Muraoka, *Lexicon*, 602; J. Lust, *Lexicon*, 407.

63) L. Wächter, “שׁוּחָה”, G. J. Botterweck, H. Ringgren, and H.-J. Fabry, eds., *TDOT* XIV, D. W. Stott, tr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595-599; D. J. A. Clines, *DCH*, 303; M. Z. Kaddari, *Dictionary*, 1066.

64) 클라인즈(D. J. A. Clines)의 사전에는 ‘슈하’의 2차적 의미로 ‘부드러운 모래’라는 뜻을 제시하고 있지만 렘 2:6만을 용례로 든 것으로 보아 칠십인역의 읽기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D. J. A. Clines, *DCH*, 303. 카다리의 성서 히브리어 사전과 *TDOT*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들 가운데 골짜기로 번역된 곳에 반영되어 있다(NIV, NJB). 한편 ‘쉬하’를 시편 119:85[LXX 118:85]에서 칠십인역은 원뜻과 동떨어진 ‘말, 담화’(ἀδόλεσχία)로 읽고 있는데 이는 자음이 유사한 ‘시하(σιῆσ)’로 잘못 읽은 경우로 보인다.⁶⁵⁾

4.2.2. 물

물과 관련된 지리적 용어들 중 다른 읽기를 보이는 예는 많지 않지만 유독 본문 전승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현저하다. ‘아인’(샘)의 다른 읽기는 두 곳에서 나타난다(느 2:14; 12:37). 칠십인역에서 마소라의 샘문(שַׁעַן הַעַיִן)을 음역한 ‘아인 성문’(πύλη τοῦ Αἰν)으로 고유명사화했으나 바티칸과 시내산 사본에는 아인 대신 소리가 유사한 ‘아이나(αινεῖν, 찬양하다)’로 전한다.⁶⁶⁾ 특히 칠십인역은 느헤미야 2:14뿐만 아니라 13절의 ‘골짜기 문’과 ‘용의 샘’도 각기 ‘고렐라(γωληλα) 성문’과 ‘무화과(συκῶν) 샘’으로 다르게 읽었다. 고렐라 성문은 ‘게 라일라(גַּלְיָא לַיְלָא)’를 고유명사화해 잘못 읽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15절에서 다시 언급될 때는 골짜기(φάραγγος) 문으로 읽어 속단하기 어렵다. ‘탄닌(תַּנִּין)’을 두고 현대 번역본들 대부분은 ‘용’으로 번역했지만 ‘뱀’(NKJ)과 ‘자칼’(TNK)로 번역하기도 했다.

쉽블렛은 ‘시내, 홍수, 조류’라는 뜻이며 2차적으로는 ‘이삭’이라는 뜻도 있다.⁶⁷⁾ 사사기 12:6에서 길르앗 사람이 ‘쉽블렛’의 발음을 두고 에브라임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다.⁶⁸⁾ 칠십인역은 ‘쉽블렛’의 상용어로 ‘스타쿠스(στάχυς, 이삭)’를 택해 문맥을 모호하게 만든 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순세마(σύνθημα, 비밀번호)’로 읽어 문맥과 조화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 27:12상반(מִשְׁבֵּלַת הַנָּהָר עַד-נַחַל מִצְרַיִם)은 ‘쉽블렛’의 해석과 지리적인 범위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다.⁶⁹⁾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타작마당에 비유하고 심판의 지리적 범위를 언급하는데 칠십인역은 “그 강의 운하(διώρυξ)로부터 리노코루라(Ῥινοκορούρα)까지”로 읽는다. ‘리노코루’라는 이스라엘과

65) L. Wächter, “שַׁחַח”, 598.

66) 느 2:37의 πύλης τοῦ αἰν의 비평장치에는 다수의 사본들이 각기 다른 읽기를 전해 복잡한 본문 전승의 문제를 제기한다.

67) M. Z. Kaddari, *Dictionary*, 1048; D. J. A. Clines, *DCH*, 238.

68) 클라인즈 사전은 ‘쉽블렛’의 3차 의미로 ‘사행천(蛇行川)’을 더 설명하며 용례로 사 12:6을 든다. 요단강은 사행천이라는 지리적 특징이 있는데 사 12장은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행천’이라는 뜻을 내포한 ‘쉽블렛’의 의도적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쉽블렛’의 발음을 두고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왜 이 단어가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69) A. Schwarzenbach, *GTH*, 65-67.

에굽의 경계에 있는 ‘나할’(와디)로 현재는 ‘엘 아리쉬’라고 불리는데 칠십인역 번역 당시에 널리 알려진 그리스어 지명이다.⁷⁰⁾ 심판에 비유된 타작마당은 쉼볼렛을 ‘이삭’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따라서 현대 번역본들 중 『새번역』이 쉼볼렛을 ‘알곡’으로 보았고, TNK는 ‘곡식’을 한번 더 추가했고 『개역개정』도 ‘과실’을 더 삽입했다.

마소라의 ‘아감’, ‘게베’, ‘비차’는 ‘늪, 습지, 호수’를 일컫는데 ‘아감’과 ‘게바’는 ‘호수’나 ‘못’으로 더 많은 용례가 나타나지만 ‘비차’는 거의 진흙과 관련된 지형에서 나타난다.⁷¹⁾ 그러나 칠십인역에서 ‘비차’는 일반적인 ‘하구’(διεκβολή, 겔 47:11), ‘물, 습기’(πότος, 욥 8:11)로 나타난다. 다만 욥기 40:21에서 ‘비차’는 지형이 아닌 늪에 식생하는 식물(βούτομον)로 다르게 읽었다. 칠십인역 번역자는 ‘비차’를 갈대와 평행어로 보고 식물로 이해해 문맥에 맞게 읽었거나 대본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사야 35:7하반도 여기서 언급할만하다. 이사야 35:7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황무지에서 극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된다는 문맥에서 언급된다. 7상반절은 문법과 평행 관계가 뚜렷하다. 뜨거운 사막(השרב)은 물이 흥건한 늪지대로(לַאֲנָם), 메마른 땅(צְמֵאוּן)은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לְמַבְוְעֵי מַיִם) 변하게 될 것이다. 7하반절은 타님의 정체와 본문의 심한 훼손으로 인해 해석에 논란을 일으킨다.⁷²⁾ 더욱이 칠십인역은 “그곳에 새들(ὄρνέων)의 기쁨(εὐφροσύνη)이 있을 것이고 갈대와 늪지대(ἐλη)가 서식처(ἐπαυλις)가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여 마소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현대 번역본들 다수는 이 구절을 “자갈(승냥이)들의 서식처가 풀,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라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자갈의 서식지는 은신하기 좋은 수풀인데 그곳이 늪지대로 변하는 것이 극적인 환경의 변화를 비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상반절의 평행 관계에 맞추고 지리적 용어들과 동물의 생태학적 이해를 반영한 TNK의 번역이 설득력이 있다. TNK는 마소라에 없는 타조를 삽

70) 앤슨 F. 레이니, R. 스티븐 나틀리,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366; Y. Elitzur and Y. Keel, *The Daat Mikra*, 48.

71) 『개역개정』에서 ‘아감’이 못으로 번역된 곳은 6회(출 8:5[1]; 사 41:18; 42:15; 35:7; 시 107:35[LXX 106:35]; 114:8[LXX 113:8]), 갈대밭(늪)은 1회(렘 51:32[LXX 28:32])이다. ‘게베’는 두 곳에서만 나타나는데 물 웅덩이(사 30:14)와 개펄(겔 47:11)로 번역되었다. ‘비차’는 3회 나타나는데 예외 없이 진펄, 늪으로 번역되었다(겔 47:11; 욥 8:11; 40:21). 다른 현대 번역본들도 『개역개정』과 유사한 경향으로 번역되었다.

72) 무라오카 색인집에 따르면 תת에 대한 칠십인역의 상응어는 용, 뱀(δράκων), 고슴도치(ἐχίνος), (용의) 악함(κάκωσις), 사막 부엉이(σειρήν), 새(στρουθός)등으로 다양하다. 사 35:7하반의 논쟁에 대해서는 A. Schwarzenbach, *GTH*, 72-73 참고.

입하여 “자칼의 집이 목장이 될 것이며 타조의 집이 갈대와 왕골이 될 것이다”라고 수정해서 읽었다. 자칼과 타조는 앞장에서 이미 둘이 같이 언급되었으며(사 34:13) 다른 곳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는 동물이다.⁷³⁾ 자칼은 사냥을 위해 은신하기 쉬운 수풀에 살며 타조는 시야가 좋아 전망이 트인 광야나 황무지를 선호한다. 따라서 자칼이 평화롭고 개방적인 목장에서 살고 타조가 늪지에서 산다는 것은 생태학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7상반절과 조화되며 35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도 이해할 만한 비유를 제공한다.

4.2.3. 경작지

‘사데’는 ‘하르’(산)같이 구약에서 300회 이상 넘게 언급되는 일상적인 용어인 만큼 다른 뜻으로 넓게 사용되었다. ‘사데’는 일차적 의미인 밭과 들판이라는 뜻 외에 민족이나 나라의 영역을 묘사하는 영토, 땅으로 사용되며 경작지의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한다.⁷⁴⁾ 칠십인역도 ‘사데’를 다의적인 상용어들로 표현했지만 단 1회 ‘산’으로 다르게 읽었다(욥 1:19). 오바다 1:19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땅들이 나오는데 ‘하르’, ‘사데’, ‘세펠라’, ‘네게브’ 같은 지리 용어들이 민족의 이름과 함께 언급된다. 이 구절에서 ‘사데’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관련해서 두 번 언급되는데 칠십인역에서 전자는 ‘산’(ὄρος)으로 후자는 ‘평원’(πεδῖον)으로 다르게 번역했다. 에브라임 산지⁷⁵⁾는 역사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명인데 2회(삿 12:15; 욥 1:19)를 제외하고 항상 하르로 나타나며 칠십인역 상용어도 정형적인 오로스이다. 칠십인역 오바다의 사데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을 따라 수정해서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번역본들도 ‘들’(『개역개정』, NKJ, NIV), ‘영토’(『새번역』, 『성경』), ‘땅’(NRS), ‘지방’(TNK)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거나, 아예 번역을 생략한 경우(NJB)도 있어 칠십인역처럼 마소라의 ‘사데’를 읽기가 쉽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칠십인역의 다르게 읽기는 대체로 마소라 본문 자체의 훼손이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났다. 다르게 읽기가 상용어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해석학과 본문 비평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다르게

73) 욥 30:29; 사 43:20; 미 1:8; 애 4:3.

74) 각각의 뜻에 따른 용례에 대해서는 A. Schwarzenbach, *GTH*, 82-85 참고.

75) 칠십인역에서 에브라임 산지와 달리 사마리아 산지는 ‘사데’를 ‘페디온’(‘평지’)이라고 번역했다. 한 구절 안에서 한 단어에 대해 다른 상용어가 나온 경우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사마리아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 같은 굳어진 표현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될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의 용례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줄고, 이미숙, “지리적 관점에서 본 북 왕국의 역사와 수도(首都)들”, 『구약논단』 71 (2019), 219-221 참고.

읽기의 양상도 다양한데 ‘바마’와 ‘오펠’, ‘가이’처럼 본문과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맥에 맞추어 자유롭게 해석한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또한 ‘마드레가’처럼 지리적 지식의 한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네드’와 ‘쉬하’처럼 명백한 오류로 보이는 듯한 용례도 발견된다. 그런가 하면 칠십인역 번역자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보여 준 것처럼 마소라의 ‘사데’보다 구약의 관용적 표현에 충실한 경향은 흥미롭다.

5. 결론

이제까지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이 칠십인역에서 어떤 상응어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소라의 지리적인 용어들 중 지형과 물, 경작지와 관련한 단어들은 지형의 형세, 생성 원인,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른 흔적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그 의미들과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많지만 고대 용어들의 풍부한 어휘와 전문성은 현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81개의 지리적 용어들에 대해 250개의 상응어들로 표현한 것들 중 마소라와 일치하는 용례는 80%에 이른다. 칠십인역의 번역은 ‘하르’와 ‘나하르’, ‘아인’처럼 정형적인 상응어도 있고 지리적인 지식의 한계도 드러냈지만 더 많은 그리스어 상응어들로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본문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역동성을 불어넣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언어들로 부활시켰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지리적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고심과 노력의 흔적은 마소라의 용어들과 불일치하는 데에서 더 잘 드러났다. 칠십인역의 다르게 읽기와 음역은 마소라 본문의 훼손이나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났다. 이 가운데 다수의 용례들은 번역자들이 문맥에 맞추어 자유롭게 해석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대본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리스어의 문헌과 사전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칠십인역과 현대 번역본들의 비교를 통해 ‘나할’, ‘아세드’(아세돏), ‘미쇼르’같은 전문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된다. 칠십인역 연구는 한글 번역 성경들의 지리적인 용어들에 대한 번역들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Keywords)

칠십인역 번역,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 그리스어 상용어, 성서 지명, 음역.
the Septuagint translation, geographical terms of MT, Greek equivalents,
biblical toponym, transliteration.

(투고 일자: 2020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19일)

<부록 1> 마소라의 지리적 용어에 대한 칠십인역 상용어

유형	마소라	칠십인역 상용어				계
		일치	유사	음역	차이	
고지형	העכב	σκολιά				1
	הה	ὄρος, ὄρεινός	βουνός		γη	4
	נבעה	βουνός, θίς	ὄρος		νάπη	4
	נב	νώτων/νώτος	οἶκημα πορνικός, πορνείον			3
	נבנן	τετυρωμένοι				1
	רסכ	τραχεία				1
	במה	ύψηλός, βωμός, βουνός, θυσιαστήρ, ὕψος, ἐπάνω	ἄλσος, εἶδωλον, στήλη	Αβαμα, Βαμα	ἀγαθός, ἰσχύς, ἔρημος	14
	לת	χώμα, ὕψος, ἄβατος, ἀοίκητος	χωματίζειν			5
	תתכ	νώτος				1
	קרן	κέρας				1
	שן	ἀκρωτήριο, ἔσοχή				2
	עפל			Ωφαλ, Οφλα	τὸ σκοτεινόν, κῶμαι	4
	נד	τείκος, πήγμα			ἄσκος	3
	שכס			Σικιμα		1
	ראש	κορυφή, κεφαλή, ἄκρον	ἀρχή			4
	צלע	πλευρά				1
	אשד			Ασηδωθ		1
	ערון	-	-	-	-	0
	מדרגה				φάραγξ, προτείχισμα	2
	מעלה	ἀνάβασις, προσανάβασις, ἀναβαίνειν	πρόσβασις			4
מורד	κατάβασις, καταφερός (33)	ὁδός (11)	(6)	(10)	3	
저지형	נחל	χειμάρρους, φάραγξ, ποταμός, νάπη	διώρυξ, κῦμα	ναχαλι, ναχαλ, Ναχαλι		9
	נַי	φάραγξ, νάπη, κοιλάς, αὐλών	χειμάρρους			5
	נַי			Γαι, γαι, γῆ	ἐν μέσῳ, πολυάδριον, βουνός, ὄρος, χάος	8
	נַי	νάπη, φάραγξ		γαι, γεμελεδ (גלגל-נַי), γῆ	χάος	6
	עמק	κοιλάς, κοῖλος, φάραγξ, αὐλών	πεδῖον	Εμεκ	αὐλαξ	7

유형	마소라	칠십인역 상용어				계
		일치	유사	음역	차이	
	בקעה	πεδίων, πεδινή, περίχωρα				3
	הוש			Σαυη		1
	מישור	πεδινός, πεδίων		Μισωρ	κατορθούν	4
	משוט	ψυγμός (20)	(4)	(12)	(8)	1
오목 지형	פתח	βόθυνος	χάσμα		βουνός, θυμός	4
	פתח	βόθρος, βόθυνος	ρύπος, φθορά, καταφθορά, διαφθορά, θάνατος, άπώλεια, άπολλύειν			9
	פתח	βόθρος			ἄβατος	2
	פתח	βόθρος			ἄδολεσχία	2
	מכתח				θιμωιιά	1
	גומץ	βόθρος				1
	הלהת	τρώγλη				1
	תח	τρώγλη, όπή	νοσσία			3
	תח	μάνδρα			δεσμός	2
	תחת	τρώγλη, όπή				2
	תחת	βόθυνος				1
	תחת	τρώγλη, τρυμαλιά				2
샘	עין	διέξοδος, πηγή, ύδραγωγός				3
	עין	πηγή		Αιν	ἄινειν(A)	3
	עין	πηγή				1
	עין	πηγή				1
	מקור	πηγή, ύδατος έξοδος, ρύσις, φλέψ (10)	(0)	(1)	(1)	4
유수	נחל	ύδωρ, ροιζείν, όμβρημα				3
	יב	παραρρείν, διαπορεύεσθαι				2
	יב		ικμάς			1
	פלג	διέξοδος, όρμη, όρμημα, ποταμός, ἄφεις, διαπορεύεσθαι				6
	נהר	ποταμός	πλήμμυρα			2
	יאר	ποταμός, διώρυξ				2
	ירדן			Ίορδάνης		1
	שביל	διώρυξ, καταγίς (16)	στάχυς (3)	(1)	σύνθημα(A) (1)	4
고인물	מקנה	σύστημα, συκεστηκός ύδωρ, συναγωγή				3
	מקנה	ύδωρ				1
	ים	θάλασσα, ποντοπορείν,	δυσμή		λουτήρ	6

유형	마소라	칠십인역 상용어				계
		일치	유사	음역	차이	
		παράλιος, παραθαλάσσιος,				
	אגל	ἔλος, λίμνη, σύστημα				3
	גב		ἕδωρ μικρόν, ὑπέραρσις			2
	בצה	διεκβολή, πότος (13)	(3)	(0)	βούτομον (2)	3
부속 지형	מעבר	διάβασις	πέραν			2
	מעברת	διάβασις	φάραγξ			2
	עברת	διάβασις		Ἀραβῶθ		2
	י	τὰ παρά/παρά, συγκυροῦν, χεῖλος	πλατεῖς			4
	פפ	χεῖλος, πρόσωπον				2
	גדי	κρηπῖς, τείχος				2
	מפרץ	διακοπή				1
	גן	παράλιος/πηραλία, παραθαλάσσιος	αἰγιαλός, ὄρμος			4
	א	νῆσος	θάλασσα, ἔθνος			3
	מבוא	εἴσοδος (15)	δύσις, δυσμή (9)	(1)	(0)	3
경 작 지	מקשה	ποτιζομένη				1
	שדה	ἀγρός, πεδῖον, ἄγριος, ἄγρικός, γῆ, γεώργιον, γεωργεῖν, χώρα, ὄριον	κτῆμα, ἀμπελών, δρυμός		ὄρος	13
	כר	τόπος πίων			κρίός	2
	מנשר	περισπόριον, ἀφωρισμένα, ἀφόρισμα, διάστημα, ὄμορος, προάστειον, συγκυροῦντα, περισπόριον, περίχωρος	κατάσχεσις			10
	חלקה	μερίς, μερίζειν				2
	גב	-	-	-	-	0
	בר	γένημα				1
	חלק	μερίς, μέρος, διαμερίζειν (26)	κλήρος, κληρονομία (6)	(0)	(2)	5
계	81	154	45	21	30	250

(* 단어: 무라오카/HR에 의한 추가, 단어: 필자의 추가, 괄호 안의 숫자는 유형별 소계)

<참고문헌>(References)

-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6.
- 김창주, “출애굽 초기 경로와 지명 톨아보기-믹돌, 바알스본, 비하히룻”, 「성경원문연구」 35 (2014), 7-26.
- 레이니, 앤슨 F., 나틀리, R. 스티븐,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0.
-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성경원문연구」 11 (2002), 68-89.
- 박동현, “한글개역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16 (2000), 79-109.
- 방석중,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8 (2001), 158-183.
- 이미숙, “오노마스티콘으로 본 유세비우스와 제롬의 성서지명 이해”, 「장신논단」 46:4 (2014.12), 61-88.
- 이미숙, “지리적 관점에서 본 북 왕국의 역사와 수도(首都)들”, 「구약논단」 71 (2019), 214-244.
- 정장호 편저, 『지리학 사전』, 경인문화사, 1984.
- Aharoni, Y.,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A. F. Rainey,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Baly, D., *The Geography of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Pub., 1974.
- Barr, J., “Vocalization and the Analysis of Hebrew among the Ancient Translators”, B. Hartmann, et al., eds., *Hebräische Wortforschung: Festschrift zum 80. Geburtstag von Walter Baumgartner*, VTS 16, Leiden: Brill, 1967, 1-11.
- Barr, J., “Doubts about homoeophony in the Septuagint”, *Textus XII* (1985), 1-77.
-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Elitzur, Y., *Ancient Place Names in the Holy Land: Preservation and History*,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4.
- Elitzur Y. and Keel, Y., *The Daat Mikra Bible Atlas: A Comprehensive guide to Biblical Geography and History*, L. J. Schramm, trans., Jerusalem: Keter Press, 2011.
- Hatch, E. and Redpath, H. A.,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vol. 1-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4-1987.

- Kaddari, M. Z., *A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Alef-Taw)*, Ramat Gan: Bar-Ilan University, 2007 (in Hebrew).
- Lee, J. A. L., *A Lexical Study of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Pentateuch*, Chico: Scholars Press, 1983.
- Lust, J., Eynikel, E., and Hauspie, K.,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vol. I, II,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aris; Walpole: Peeters, 2009.
-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Notley, R. Steven and Safrai, Z., *Eusebius, Onomasticon: The Place Names of Divine Scripture*, Boston. Leiden: Brill, 2005.
- Olofsson, S.,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ical Exegesis*,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 Orlinsky, H. M., “The Septuagint as Holy Writ and the Philosophy of the Translator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6 (1975), 89-114.
- Orni, E. and Efrat, E., *Geography of Israel*, 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 1966.
- Schwarzenbach, A., *Die Geographische Terminologie im Hebraischen Des Alte Testamentes*, Leiden: E. J. Brill, 1954.
- Smith, G. A.,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Jerusalem: The Fontana Library, 1968.
- Thackeray, H. St. J.,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I. Introduction, Orthography and Acci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 Wächter, L., “שָׁחַר”, G. J. Botterweck, H. Ringgren, and H.-J. Fabry, eds., *TDOT* XIV, D. W. Stott, tr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595-599.
- Zvi, Y., “Mighty Rivers in a Desert Land”, *Erez* 64 (1999), 10-12.

<Abstract>

A Study of the Septuagint Translation of Geographical Terms and Related Toponyms in the Massora Text

Mi-Sook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re are many Hebrew toponyms in the Massora Text (MT) that reflect various geographical features. However, when such MT technical terms are rendered into other languages, it is not easy to translate them properly. For instance, the Septuagint (LXX) translators translated 129 technical Hebrew terms into 440 Greek equivalents, which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number of Hebrew words in the original MT. This study therefore begins with a question of how 81 Hebrew MT terms (about 63% of the 129 original terms, which the LXX translated into 250 equivalents) reflecting Israel's topography, water, and arable land were translated into later versions as based on A. Schwarzenbach's list.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XX translation. It also reviews the translation issues in modern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regarding terms that require geographical understanding, and also seeks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Bible.

Geographical MT terms relating to topography, water, and arable land have traces of different names according to landscape, cause of formation, and place of topography. Among the 250 LXX equivalents for the 81 studied Hebrew terms, 80% match the original MT. The LXX translations also revealed stereotype equivalents, such as Har, Nahar, and Ain, and limitations in geographical knowledge, but by expressing the terms in Greek, the LXX enriched the MT's interpretation and brought dynamics back to living languages.

The LXX translators' effort to understand the Hebrew terms were better revealed in discordance with the MT terms. Their different readings of the MT and transliteration occurred due to problems with the MT's interpretation and textual corruption. These problems are not large in 20% of the LXX equivalents, but are also not small in terms of biblical hermeneutics and textual criticism.

There are intentional cases that can be confirmed in examples of LXX

transliteration, such as Bama, Nahal, and Araba, which are read or modified as a place name to harmonize with context. Aspects of different reading also vary, and some examples result from freely interpreting the context such as Bama, Ofel, and Gai. In some cases like Madrega, there are limitations of geographical knowledge, and examples that seem to be obvious errors like Ned and Shiha are also found.

Comparing the LXX to modern MT translations, issues with the translations of geographical terms such as Nahal, Ashed (Ashedot), and Mishor still exist. The translations of these terms in the Korean Bible thus need to be reviewed professionally and carefully.